

아르헨티나의 2001년 전후 새로운 사회운동의 문화적 접근: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안태환(2016), 「아르헨티나의 2001년 전후 새로운 사회운동의 문화적 접근: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 이베로아메리카연구, 27(3), 29-65.

초 록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은 좌파정당이나 조직노조의 지도에 의한 노동운동, 정치운동이 아니라 대중 스스로가 중간계급과 연대하면서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로 즉, 집단적 주체로 출현하면서 기존의 사회관계 또는 권력관계의 구조적 틀을 변화시키려는 사회운동을 말한다. 아르헨티나에서 1990년대 후반부터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이 나오게 된 맥락은 신자유주의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중과 중간계급의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에 의해 추동된 피케테로스운동, 주민총회운동, 물물교환운동을 말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상기 세 가지 새로운 사회운동의 실천적 사례들을 통해 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 구조를 실제로 얼마나 단절 또는 극복하였는지에 대한 총체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화 특히 대중과 중간계급이 일상적 문화 수준에서 어떻게 연대하였는지를 분석하려는 데 있다. 특히 어떤 문화적 맥락들이 이들 대중(중간계급을 포함하여)으로 하여금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을 가지게 했는지를 분석하려고 한다. 1990년대를 통해 중간계급의 몰락(실업과 가난)이 일어난다. 이들 하층 중간계급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물물교환운동, 주민총회운동을 통해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배제된 대중과 연대하는 정동과 사회성을 보여준다. 그렇게 된 맥락은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동질성', '문화적 친근성', '수평성' 때문이다. 대중의 경우도, 실업을 통해 극단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위로와 연대의 동네 덕분에 집단적으로 신자유주의에 저항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중간계급과 대중이 개인적 고립이 아닌 연대로 나아가며 자본주의 시장구조의 해체와 재구성의 실험(예: 물물교환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은 동네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적 문화의 힘 때문이다.

핵심어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 문화적 친근성, 피케테로스운동, 주민총회운동, 물물교환운동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2-S1A5A2A03).

I. 들어가는 말

라틴아메리카 사회운동의 정치, 이데올로기적 노선은 대체로 네 개로 구분된다. 첫째, 볼리비아 등에서 드러나는 공동체적 원주민 문화운동, 둘째, 베네수엘라 등의 민족적-대중주의 운동 담론 셋째 전통적 좌파 담론, 넷째 대중이 주체가 되는 자율주의적 새로운 담론이다(Svampa 2010b, 8). 마지막 흐름 중의 하나가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이다. 이 흐름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는 “자율의 긍정, 수평성(위계서열의 부정), 합의에 의한 민주주의”이다(Svampa 2010b, 9). 물론 이런 노선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되어 시간을 두고 축적되어왔다. 라틴아메리카의 새로운 사회운동 또는 새로운 집단적 주체의 출현과 사회조직 형태의 재구성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과거의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구조적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Svampa 2000, 1). 즉, 새로운 사회운동은 이를 다시 변화시키려는 운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과거의 사회관계의 구조적 틀은 ‘수입대체 산업화 모델’을 의미한다. 이 모델은 사회적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모델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이 모델을 무너뜨리기 위해 일차적으로 공격한 것은 군사정부(1976-1983)였다. 그러나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이차적으로 ‘국가’를 축소하고 ‘시장’을 극대화시키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통해 상기 모델을 해체한 것이 메넬정부(1989-1999)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1년 대규모 시위가 폭발하기 전과 이후 대중과 중간계급이 새로운 사회운동 즉, 피케테로스운동, 주민총회운동, 물물교환운동을 통해 보여준 연대의 ‘정동(afecto)’과 ‘사회성(sociabilidad)’ 출현의 문화적 맥락을 분석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이들 새로운 사회운동의 총체적 또는 역사적 분석과 이들 운동이 과연 아르헨티나의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구조를 단절 또는 전환시켰는지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대중과 중간계급이 보여준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이 문화적으로 어떻게 분출할 수 있었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문화적 맥락은 ‘동네’라는 동질적 공간에서 나오는 사회적 동질성(Svampa and Pereyra 2009, 134) 또는 영토성(territorialidad)(Merklen 2004, 1)이다. 그리고 두 번째 문화적 맥락은 문화적 친근감을 통한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의 발현이다.

이런 맥락에서 새로운 사회운동 출현의 분기점은 1990년대다. 왜냐하면 1990년대 이전에는, 조직노동자들만이 자본에 대한 저항의 실질적 중요 세력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나머지 민중진영의 조직들이 따라야 하는 결정적 모델 또는 근거였기 때문이다(Zibechi 2011, 53). 즉, 노조나 좌파 정당이 사회운동의 중심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조직 노동자 대신에 원주민 또는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대중’이 새로운 집단적 주체 또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Svampa 2004b, 113)로 출현하게 된다(이하 배제된 대중을 간략하게 ‘대중’으로 표기할 것이다). ‘대중’이란 표현은 ‘민중’보다 훨씬 유연하고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아르헨티나의 1990년대 이후의 맥락에서 경제적으로 위상이 흔들린 중간계급도 당연히 대중의 범주에 포함된다. 다시 말해, 과거의 부르주아(자본가)/프롤레타리아(노동자) 계급이라는 경직된 이분법적 시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사회도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실업자들만이 아니라 퇴직공무원 등 도시 중간계급도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에 집단적 주체로 참여했다. 구체적으로 1993년의 “산티아고 시위(Santiaguazo)”를 말한다(Rauber 2002, 1). 이 시위가 메넴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저항한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의 대중 시위는 정확하게 2001년 12월 19일과 20일에 일어났다. 직접적인 동기는 은행 계좌의 동결조치와 정치인의 부패 때문이었다(Fontana et. al. 2003).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과 사회조직 형태의 재구성은 2001년 전후에 이루어진다.

실업자들의 도로 점거 시위 즉, 피케테로스 운동은 1996-1997년의 남부지방의 실업자들에 의해 시작되었고(Svampa 2004b, 120), 2000년의 ‘라 마따사(La

Matanza)’지역의 약 5천명의 실업자와 주민의 참여로 본격화되었고(Rauber 2002, 7), 2004년까지 지속되었다(Svampa and Pereyra 2009). 그리고 중간계급과 실업자들이 연대한 주민총회(Asambleas Barriales) 운동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이루어졌다(Lobato 2003, 152). 이들 두 운동을 공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핵심어가 ‘도로’와 ‘동네’가 된다.

그리고 중간계급과 실업자들이 연대한 “물물교환운동(movimientos de trueque)”(Mellado 2005) 또는 “물물교환 클럽 네트워크 운동(redes de club de trueque)”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03년 현재, 참여인원이 7백만에 이르고 전국에 걸쳐있다(Fontana et. al. 2003, 233). 이들 새로운 사회운동은 근대적, 합리주의적, 자유주의적 교환을 기본적 전제로 삼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해체하거나 넘어서는 비자본주의적 사회운동이다. 특히 물물교환 운동을 통해 근대성의 핵심 매개인 화폐를 통하지 않는 “시장을 재 발명”(Gonzalez Bombal 2002, 112)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01년 대규모 대중이 시위에 함께 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세 가지 새로운 사회운동의 지속성과 사회성(사회적 조직화)이다. 무려 1993년부터 2004년까지 지속되었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파편화를 가져오는 신자유주의 체제에 놓인 많은 사회들의 상황과 달리 아르헨티나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수행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이 출현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가치가 충분하다.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바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정치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동이란 ‘감정의 사회성’과 비슷한 단어로 연대 외에 배제, 차별, 투쟁, 경쟁, 선망, 분노, 절망, 혐오 등도 정동의 예로 들 수 있다. 정동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는 ‘신체의 잠재성’과 ‘역능(잠재적 능력)’(이동연 2016, 51)으로 표현된다. 정동은 정신과 신체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니라 일원론적으로 정신과 신체에 작용하며 자신의 잠재 능력을 높일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투쟁과 절망의 정동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정서란 정신에 연관되는 한 정신으로 하여금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 이전보다 크거나 적은 존재 능력을 긍정하도록 하는 관념이다. 그러므로 정신이 어떤 정서에 사로잡힐 때 동시에 신체는 자기의 활동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반응을 겪는다.(스피노자 2016, 252)

정동은 개인적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집단성, 사회성을 의미한다.

정동은 신체가 다른 신체들과 조우하고 있거나 다른 신체들에 속해 있다는 것의 표지이다. 혹은 정동은 신체가 부대끼는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의 표지이며 또는 세계가 이러한 부대끼이라는 신체에 속해있다는 지표이기도 하다. (권명아 2012, 17)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새로운 집단적 주체’인 ‘대중’의 출현이다. 네그리와 하트(2011, 518)는 2000년에 쓴 『제국』에서 근대성의 단절을 가져올 주체는 대중이라고 강조하지만 아직 “어떠한 모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다. 다음 해인 2001년 12월의 아르헨티나의 “강력한 조직적 폭동”(518)을 알았다면 아마 다르게 이야기 했을 것이다.

정치적인 것이 정말로 긍정되는 때이다. 자기 조직화, 주체들의 협동적 수렵, 그리고 프롤레타리아들의 생산관리가 구성 권력이 되는 때이다. 이곳이 근대 공화국이 실존하는 것을 멈추고 **탈근대적 ‘힘’**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이미 제국에 대항한 대중의 행위들을 통해 자신의 헤게모니를 긍정한다. 우리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사건은 강력한 조직의 건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강력한 조직의 폭동**이다... 새로운 협동적 생산성에 의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갱신된다. 우리는 오직 ‘힘’의 정치적 발전이 성숙하기만을 기다린다. 우리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제공할만한 어떠한 모델도 가지고 있지 않다. 오직 자신의 실천적 실험을 통하여 **대중**만이 그 모델들을 제공할 것이며 언제 어떻게 가능성이 현실이 되는지를 결정한다. (네그리 · 하트 2011, 518. 강조는 필자)

위에서 네그리와 하트가 언급하고 있는 ‘탈근대적 힘’이라는 단어가 주목된다. 네그리와 하트가 ‘탈근대적 힘’이라고 강조하는 맥락은 근대적 국가의 경

계를 넘어 유목민적 이주민이 증가하고 포스트포드주의적이고 정보화된 체제에서의 비물질적이고 유연하고 유목적인 협동의 대중 지성을 가지는 '사회적 노동자'의 '대중의 역능'과 연결된다(네그리 · 하트 2011, 514-516). 그러나 본 논문의 가설을 미리 언급해본다면, 아르헨티나 대중의 집단적 분노와 강한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은 근대성, 자본주의의 위계적 차별을 넘어서려는 유토피아적 평등의 에토스를 가지고 있어 유럽 '내부'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네그리와 하트의 주장과는 맥락이 다르다. 다시 말해, 네그리와 하트의 경우, 일직선적 진보(근대-탈근대, 포드주의-포스트포드주의, 산업화-정보화 등)의 근대성의 개념이 무의식적으로 장착되어있다면 아르헨티나 대중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보여준 네트워크 중심의 탈근대적 힘은 예를 들어, '물물교환(trueque)' 운동에서 잘 드러나듯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개인의 이기심과 욕구충족을 넘어 '오래된 미래'인 상호 호혜적 방식을 통해 화폐적 교환의 근대적 시장 조건을 넘어서려는 상상력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는 마리스텔라 스밤파와 세바스티안 페레이라(Svampa and Pereyra 2009)가 피케테로스운동과 주민총회의 의미와 맥락을 연구했으며 스텔라 마리스 무이노스 데 브리토스와 카롤리나 루수리아가(Muiños de Britos and Luzuriaga 2004)는 피케테로스운동과 주민총회운동의 문화적 성격을 연구했다. 이네스 곤살레스 봄발(Inés Gonzalez Bombal 2002)은 해체되는 중간계급의 사회성과 물물교환운동을 분석했고 아나 마리아 페르난데스(Ana María Fernandez 2004)는 주민총회와 집단적 주체의 구성에 대해 연구했다.

2장에서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정동과 사회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을 살펴보고 3장에서 페론이즘이 대중에게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4장에서 메넬정부 시절에 중간계급과 대중의 연대의 정동이 처음 출현하게 된 맥락을 살펴본다. 그리고 5장에서 중간계급과 대중이 어떻게 문화적 수준에서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을 보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II. 정동과 사회성에 대한 이론적 성찰 -스피노자를 중심으로-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이 일정한 국면에서 보여준 독특한 비자본주의적 대응을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기존의 유럽중심적 근대 사회과학의 주류 이론들로만 해석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사회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의의 출발점을 스피노자의 정치이론에서 찾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유럽중심적 근대성의 핵심적 특징은 이분법적 사고인데 이를 스피노자가 깨트리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유럽의 근대 철학자들 중 최초로 영혼과 육체의 위계서열적 분리를 거부하며 인간을 일원론적으로 접근하면서 인간의 이성 외에 감정과 욕망에 대해 언급하였다.

욕망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했다. 모든 존재는 가능한 한 멀리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쓴다. 스피노자는 욕망(식욕, 성욕)을 인간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욕망과 의지를 구별하고 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있다고 가정하고 인간의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의지라고 한다. 한편,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인간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욕망이라고 한다. 그 욕망은 육체와 영혼의 행동과 열정으로 표현된다.(Balibar 2008, 105-106)

스피노자는 “영혼과 육체가 두 개의 다른 실재가 아니라 하나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일한 개인이 어떤 때는 사고의 복합체로 어떤 때는 육체적 복합체로 인지된다. 즉 영혼은 육체의 사고”(Balibar 2008, 90 재인용)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중이 중심적 주체가 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양태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시민성’의 구체적 표현으로의 ‘사회성’이다. 즉, 개인적 파편화를 극복하고 어떻게 아르헨티나에서 사회성이 유지, 강화될 수 있었는지 분석하려는 것이다. 사회성에 대한 이해에 있어 유럽중심적 근대성의 시각과 라틴아메리카적 시각은 서로 다른 것 같다. 전자는 위계서열적 차이를 두고 사회(문명)를 자연(야만)에 대해 반대의 의미 또는 적어도 시간적으로 ‘이후’의 의미를 가지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사회성의 시작을 루소의 경우 ‘이웃에 대한 동정

을 포함한다. 따라서 영혼의 본질이 하느님에 대한 더 큰 지식을 포함한다면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선함(좋은 것)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욕망이 더 커질 것이다. **사회성**은 이성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큰 선함에 참여할 상호성으로 정의된다.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지식(하느님의 것)을 통한다. 사람들은 **공통선(common Good)**을 욕망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것이 가지는 상호이익 즉, 서로 사랑함을 욕망한다.(Balibar 2008, 77-81 재인용. 강조는 필자)

스피노자는 사회적 삶은 사회관계로 이루어지며 사회적 주체들이 어떤 맥락에서 서로 연대하거나 단절되는지 분석한다.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연대는 거래관계이지 사회적 연대로 부르지 않는다. 인간은 원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이기적 동물이다. 그러나 법에 의해 강제되어 인간의 자연적 정동을 억제하고 타자에 대해 상호 우애로 연대할 때 도시의 기초인 ‘시민성(cidadanía)’이 형성된다고 한다. 따라서 시민성과 사회성은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시민성과 사회성은 연대의 정동에 의해 추동된다.

그러나 오늘날 신자유주의 체제의 무한경쟁과 극단적 억압과 고통스런 차별 앞에서 사람들이 ‘공통선’을 욕망한다는 언급이 공허하게 들린다. 신자유주의 체제 안에서 ‘반자본주의적 충동’에 의해 고립된 개인들이 저항을 하더라도(예: SNS 상에서의 비판) 지속적 저항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사회적, 집단적 주체로 형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이 조직화, 집단화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의 집단적 주체(예: 노동자계급, 좌파 정당, 노조 등)들이 사회 변혁의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집단적 주체 형성이 필요하다(서영표 2011, 5-6). 과거 그람시는 시민사회와 정치사회의 투쟁을 기본적인 헤게모니 각축 구조로 인식했다(그람시 2006, 289). 그러나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교회, 노조, 좌파 정당, 시민단체 등의 헤게모니가 1990년대 이후 쇠락했다. 그 대신 오랫동안 공공 공간(시민사회, 정치사회)에서 배제되었던 여성과 대중이 일상적 공간 즉, 동네, 거리, 광장 등에서 일상 정치의 새로운 집단적 주체로, 즉,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정치의 틀을 넘고 있다. 다시 말해 이제 공공성은 더 이상 엘리트와 국가의 독점이

아닌 것이다(De Ipola 2004, 56-58).

특히, 아르헨티나의 일상적 삶의 공간(예: 동네)에서부터 자본주의적 일상적 삶의 정서, 가치와 다른 흐름을 가지는 대중이 출현한 것이 주목된다. 다시 말해, 주거 공간적, 문화적 차원의 '사회적 동질성'은 다르게 말하면 빈민 대중의 동네 즉, 주거공간을 지키려는 '영토성'으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변혁의 전략은 집단적 경험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규범과 당위에 근거한 계몽으로서의 변혁전략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공간으로부터 출발해서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창출해야"(서영표 2011, 6)하기 때문이다.

박영균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비자본주의적 '충동'을 지속적으로 작동시켜 자본주의적 '신체'로부터 벗어나 탈자본화된 '신체'로의 전환이라는 비자본주의적 아비투스(아비투스)를 생성시키는 주체 형성의 전략"(2011, 14-34)이 필요하다고 다소 복잡하게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사는 개인은 일시적으로 자본주의로부터 벗어나려는 '충동'을 가질 수 있으나 지속성(신체로의 전환)을 가지지 못하는 충동은 집단적 주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핵심적 관건은 집단적 주체의 형성에 있다. 개인의 '내재적 주체화' 전략으로는 '비자본주의적 아비투스'를 지닌 주체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단적으로 정치적 변혁과 투쟁의 사회운동이 일어날 때 새로운 집단적 주체는 형성된다. 바로 그 같은 사례가 2001년 전후의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경우이다.

아르헨티나의 실업자를 포함한 대중은 비자본주의적 '충동'을 넘어 비자본주의적 '신체'를 이미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아르헨티나 외에도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게 1990년대는 이중성의 의미를 가진다. 즉, 신자유주의 정책들이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이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사회운동이 출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새로운 사회운동의 집단적 주체는 대중이다. 이들은 권력을 잡는데 관심이 없으며 대안적 사회구조 형태의 구성에 관심이 크다. 아니발 키하노에 의하면 "주변부 국가들은 재사유화 과정을 통해 주민 대다수의 이익을 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중은 공동체 지향의 새로운 정치적 권

위의 형태를 구성하는 다른 과정(otro proceso comunal)”을 출현시켰다 (Brieger 2003, 1-11 재인용). 이 다른 과정은 바로 연대와 사회성을 전제하는 공동체 지향의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실현되는 공간은 바로 동네이다. 그리하여 1990년대 후반이후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미 연대와 사회성을 잠재능력으로 내장하고 있던 집단적 주체가 쉽게 출현한 것이다. 그렇게 된 맥락에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하여 라틴아메리카 대중의 집단적 무의식 또는 사회문화의 ‘깊은’ 층위에 ‘공동체적 삶’의 문화적 기질 또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III. 페론주의가 대중의 ‘정동’에 끼친 영향

아르헨티나 대중과 중간계급이 보여준 연대의 정동을 분석하는데 페론주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1990년대 중반 이후의 피케테로스운동과 주민총회 운동 등이 페론주의의 오래된 선거집권 전략인 지역의 연고주의적 구조를 격렬하게 거부하는 투쟁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동안 중간계급이 상층부 기득권층과 연계되는 대신 이제는 아래로 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대중과 연대하였기 때문이다(Svampa 2004a, 1). 2000년에 피케테로스운동이 시작된 라 마판사 지역도 페론주의 공업화의 상징이 되는 지역이다(Merklen 2004, 2). 현실적으로 페론정권은 1955년에 종막을 고했지만 최근 2015년 말까지도 페론주의 좌파(키르치네르와 크리스티나 정부)는 집권했다. 중요한 것은 페론주의가 가지고 있는 사회관계의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페론주의 ‘문화의 존속’(Svampa 2004b, 113)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르헨티나 대중의 집단적 분노와 새로운 대안 추구의 동력이 멀리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에르네스토 사르미엔토를 주목해야 한다. 아르헨티나의 엘리트 지식인들의 문명/야만의 위계서열적 이분법에 대한 아르헨티나 대중의 비판적 감정을 주목해야 한다. 엘리트 지식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중심주의적 자유주의에 대한 지지를 지향하고 대중은 ‘공동체적 연대’를 지향한다. 그리고 엘리트와 대중의 권력관계는 항상 전자가 우세했다.

이런 흐름이 바뀐 것이 바로 페론이 통치하던 1940-60년대 시기였다. 바로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시기였다. 이 시기에 대중의 위상이 높아지고 차별적 인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사르미엔토의 ‘문명과 야만’의 시각은 오랫동안 아르헨티나의 정치, 사회, 문화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쳐왔다. 실증주의와 사회진화론의 시각에서 유럽의 백인 문명을 ‘문명’으로 설정하고 이에 비해 ‘야만’의 상징인 가우초, 야성의 자연, 그리고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인식된 원주민 등은 배제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르헨티나는 진보할 것이라는 낙관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30년대에 이르러 아르헨티나의 주류 지식인들은 직관적으로 아르헨티나의 미래가 매우 어둡고 몰락할 것이라는 ‘자유주의적 비관주의’의 담론을 펼친다. 이들 아르헨티나의 주류 지식인들은 위계서열적, 인종주의적, 유럽중심적, 근대적, 코스모폴리탄적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정치’를 거부하고 ‘대중사회’(Svampa 2010a, 246)를 무시했다. 한마디로 1930년대까지 엘리트가 대중을 차별하는 인식을 가졌다.

그리하여 페론리즘을 오랫동안 소외되고 배제된 사회세력, 즉, 대중을 근대 국가의 사회적 공공성의 영역 안에 포함시키려는 노력(Laclau 2008, 57)으로, 즉 대중이 조직화(Svampa 2010b, 8) 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변화는 대중 스스로에 의한 투쟁에서 출발한다. 19세기 말부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촌으로부터 대도시로 이주한 노동자들은 공동체적 문화적 가치들에 젖어 있었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대로 개인주의 문화에 젖은 자유주의적 엘리트 지식인들과 중간계급은 이들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해 소위 “서츠 없는 사람들”로 불리는 가난한 이주 노동자들은 집단적으로 항의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사회적 차별을 상징화하고 전달하는 제도와 기관을 공격했다. 그들의 주요 타겟은 카페, 바, 엘리트의 클럽이었고 반 페론주의적 신문사에 돌을 던졌고 학생들도 그들의 항의 대상이었다. 특히 유복한 계급의 지식자인 학생들에게 조롱의 농담을 던졌다. (De la Torre 1992, 411)

이들 대중이 페론주의의 핵심적 지지자들이 된다. 중요한 것은 에바가 페론의 부인이었지만 단지 페론의 정치적 조력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

다. 페론주의의 지지자들은 노동자, 군부, 직원, 전문직, 농촌 소농, 교회, 학생 등이었다. 그리고 페론주의의 틀 안에서 에바와 페론은 서로 다른 정치적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는 노동자 대중을 우선시했고 후자는 온건한 조합주의를 지향했다(Zanatta 2011, 370).

자본주의의 사회관계의 기본 축을 ‘자본’과 ‘노동’의 대립으로 본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우, 노동자 대중이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사회적 힘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보다 강하다. 왜냐하면 노동자 대중과 도시 중간계급의 시민들이 그들에게 유리한 사회정책의 성과를 페론주의 시기(1946-1955)동안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이다(Regalado 2008, 11-12). 따라서 1990년대 메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집행으로 인해 대규모 실업자가 양산되었을 때 이들 실업자들은 실직의 고통을 개별적으로 묵묵히 견디는 대신 집단적으로 분노와 항의의 시위를 전개할 수 있었다.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 정치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대중의 집단적 기억(Crassweller 1988, 369)이 살아 있어 정치에 대한 대중의 에토스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IV. 1990년대 중간계급의 삶의 방식의 변화

새로운 사회운동의 출현은 실업자들의 도로 점거의 집단적 항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단지 고용기회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자녀 교육문제, 식품 공급 문제 등 인간적 생존에 필요한 요구를 했다. 인간적 생존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노동자(실업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것을 요구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0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교외의 동네인 라 마탄사(La Matanza)지역의 5천명의 실업자와 주민들이 학교의 부족, 식품의 부족, 노동할 기회의 부족 등에 항의하기 위해 도로점거의 시위를 벌였다(Rauber 2002, 7). 이들 대중의 집단적 저항이 파괴력을 가지게 된 것은 단지 실업과 경제위기에 대해 항의한 것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적 사회모델을 두고 주민들 스스로가 동네에서 총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토론하였기 때문이다.

2001, 177). 이런 주장은 우리와 같이 어느 하나의 동질적·문화적 흐름에 쉽게 순응 내지 통합되는 사회에서는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이와 달리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에서도 시장 헤게모니의 순응과 동시에 이를 넘어서려는 강한 사회적 해방의 성향을 잠재적으로 가진다. 그러다가 어느 국면에서 양자의 팽팽한 긴장감 있는 균형이 깨질 정도로 사회 경제적 위기가 현실화되면 이에 저항하는 사회적 해방을 위한 운동이 즉각 현실화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2001년 대규모 시위의 구체적 맥락에서 두드러진 것은 기존의 모든 정치인과 정당에 대한 대중³⁾의 강한 거부이다. 2001년 12월 대중이 거리에 나와 “모두 다 꺼져라(Que se vayan todos)”고 외치는 거의 무정부주의적 심성의 시위를 했다.⁴⁾ 즉,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정책과 급진적으로 접속하였을 때의 파괴적 정황에 대한 거부를 보여준 것이다. 즉, 근대성에 대한 비판을 보여준다. 당시 아르헨티나 정치 경제의 위기는 심각했다. 그러므로 수많은 대중이 거리를 메우고 대규모 시위를 벌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물교환운동, 주민총회운동, 피케테로스

-
- 3) 2001년 전후의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주체는 ‘대중’으로 호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주체 출현의 라틴아메리카 고유의 정치, 사회적 맥락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의 생각이지만 ‘민중’이란 호명은 군부독재에 저항했던 우리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많이 누적된 시각이라고 본다. 특히 신자유주의가 극소수 기득권층에 의해 수많은 대중이 ‘배제’되는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이런 맥락은 ‘민중’으로 잘 표현되지 못한다. 자본가계급 또는 국가에 의한 억압과는 맥락이 다르다. 과거 1960-70년대의 라틴아메리카의 정치, 사회적 맥락에서는 피지배계급을 이념적 동질성이 강한 ‘민중’으로 호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스페인어로는 인민, 대중, 민중, 배제된 사람들 모두 동의어다.
- 4)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멕시코, 칠레, 페루는 라틴아메리카에서 19세기 후반에 무정부주의운동이 활발했던 나라들이다. 무정부주의운동이 사회주의운동과 함께 이들 나라의 진보적 변혁에 끼친 영향은 매우 크다(Cappelletti 1990).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아니므로 상세한 언급은 자제한다.
- 5) 영토성이란 정치 지리학적 또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아비타트(주거권)의 방어를 위한 사회 그룹의 집단적 투쟁과 행동을 위한 권력관계’이다. 영토성은 사회운동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치적 실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Fernandez Cabrera 2012, 51-52).

운동이 격렬하게 출현한 것은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분명히 연대의 정동을 가진 새로운 집단적 주체가 새로운 정치적 행위자로 출현한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중요한 문화적 맥락을 주목할 수 있다. 하나는 동네의 친근하고 일차적인 ‘영토성’⁵⁾을 지키겠다는 자율성의 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사회운동의 진행방식을 수직적, 권위적인 딱딱한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기 쉽게 문화적, 수평적 활동방식을 택했다는 점이다 (Svampa 2010b, 15).

신자유주의는 개인으로 하여금 소비에만 매몰시키고 탈정치화 한다. 이와 반대로 2001년 전후 아르헨티나의 다양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소비’를 정치화 (Palomino 2004, 39)시킨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는 자본에 비해 노동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항상적 불안(*precarización*)에 처하게 만든다. 그리하여 개인적 파편화가 심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아르헨티나 사회에 있어왔던 사회적 협동과 연대의 고리들이 놀랍게 다시 직접 행동으로 재발견된 것이다(Svampa 2004a, 3). 즉, 아르헨티나가 2001년 12월 심각한 사회 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협동의 사회성과 연대의 정동이 살아나면서 집단적 직접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연대와 사회성의 사회적 잠재능력이 평소 잠복하고 있다가 아주 강한 현실적 힘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런데 그 연대와 사회성이 시작된 것은 바로 1990년대의 메넬정부 시기부터였다.

메넬정부가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산업붕괴’와 심각한 불황 때문이었다. 이미 1970년대 중반이후 군부독재시기부터 아르헨티나는 수입대체산업화 모델로부터의 이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안적 산업진흥 모델이 수립되지 못하다가 하나의 대안으로 메넬정부는 신자유주의 모델(재정적자의 제거, 시장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사회적 공공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축소했다(Svampa and Pereyra 2009, 21). 하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 수출 감소와 산업붕괴로 인한 대량실업과 외채의 증가와 경상수지의 붕괴를 가져왔고 결국 2001년 12월 외채 지불정지를 선언하며 경제는 파국을 맞는다(Cohen 2007, 271).

그러나 메넴정부의 경험이 아르헨티나 역사에서 함축하는 바는 단순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도입만이 아니라 아르헨티나 사회의 기초를 완전히 재구성했다는 점이다(Svampa 2004b, 113). 1990년대에 신자유주의 정책(구체적으로 민영화 과정)이 지속되면서 중간계급 내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들의 사회화, 삶의 방식, 사회성의 공간 모델에서 더욱 격차가 표출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회관계의 급격한 흔들림 또는 변화는 아르헨티나가 주변부 사회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왜냐하면 유럽 등의 중심부 사회에서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해도 공공적(사회적) 보장 또는 통제의 장치들이 발달해있고 시민의 정치적 행동의 범위도 주변부 사회에 비해 훨씬 더 넓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사회의 경우, 1990년대 중반에 사회관계의 커다란 구조적 굴절(승자와 패자의 양극화)이 분명하게 되고 그 결과 문화적으로 동질적이던 중간계급의 재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Svampa 2000, 1-2).

다시 말해, 중간계급에서 탈락하는 “새로운 빈민들”이 갈수록 늘었고 중간계급 안에서 양극화가 커져 중간계급 내부의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약화되고 균열이 생긴 것이다.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구조적 변혁은 과거 군부독재시기에 수행된 수입대체 산업화 모델로부터의 이탈을 가속화시켜 재정적자의 제거, 시장의 규제완화, 공기업의 민영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경제계획을 실천했다. 이런 민영화와 규제완화의 급진적 상황은 사회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재구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중간계급에서 탈락하는 “새로운 빈민들”이 갈수록 많이 늘었다. 중간계급 안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이다. 그리하여 중간계급 내부의 사회문화적 연계가 약해졌다.(Svampa 2002, 55-58)

그리하여 한번 몰락한 중간계급은 이전의 경제적 지위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가난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가난한 대중의 연대적 삶의 방식의 한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전에 가졌던 개인주의적 문화의 점진적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Svampa 2002, 58). 특히 아르헨티나의 1990년대 후반의 대량 실업과정은 너무나 격렬하였다. 그로 인해 지식과 능력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삶의 스타일과 전문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중간계급과 가난한 대중이 ‘실업’이라는 동질적

조건에 놓여지게 되었다(Svampa and Pereyra 2009, 155).

때문에 중간계급과 대중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연대의 정동이 되살아난 것이다(Almeyra 2005, 66). 여기에 더해 위에서 언급한대로 중간계급이 메넴정부에게 기대했던 인플레이 안정과 삶의 질 보장이 무참하게 깨진 상황에서 대중과 연대하여 함께 저항하게 만든 것이다. 과거에 겪던 인플레이는 그런대로 견딜 수 있으나 오히려 심각한 불황과 실업은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분노가 시간이 갈수록 점증적으로 폭발하여 실업자들 외에 중간계급도 함께 거리 시위에(예: 냄비 두드리기(cacerolazo) 시위) 참여한다. 즉 2001년 12월의 대규모 시위를 말한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의 사회는 인플레이 억제와 거시경제 지표 안정과 이로 인한 외국인 투자의 성공만을 바라보며 “불평등에 대한 정념에 사로잡힌 왜곡된 의지”(랑시에르 2008, 158)가 활동하던 세계였다. 이 의지는 “개인들을 비교를 통해 서로를 묶으면서 무분별한 바보 만들기를 재생산한다. 왜곡된 의지는 대중으로 하여금 패권에 협력하는 것, 다른 지능을 없애는데 복무하는 것만을 보도록 지능을 길들이게”(158-159)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대중과 중간계급은 개인들의 경쟁구도로 쉽게 빠져들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 또는 기득권계급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⁶⁾

이런 태도 또는 성향을 만들어낸 동력은 대중의 일상의 구체적 ‘장소성’에서 나오는 문화적 생생한 감각이다. 특히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모습의 장소 즉, 동네가 오랫동안 공동체로 유지되어온 점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론

6) 라틴아메리카의 대중은 과두계급(oligarquía)의 부패에 대해 거의 본능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기본적으로 대중은 “민족주의적-포퓰리즘적 정치성향”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자유주의 글로벌 정책은 사회 심층부 대중의 동의를 구하기가 힘들다. 더구나 라틴아메리카의 중간계급은 전통적으로 아래로 향하는 사회운동의 성향이 강하다. 예를 들어, 1970년대에 대학생들이 문맹 퇴치운동, 음식과 옷의 나눔 등 빈민 동네를 찾아가는 공동체 활동이 활발했다(Triguboff 2011, 56).

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과 경험이기 때문이다.

사실 진보에의 신앙은 자꾸자꾸 사실 그대로의 세계를 허물어뜨리고 장소를 느끼고 순환을 느끼고 지속을 느끼고 문화를 느끼는 **생생한 감각**이 있어야 할 자리에 추상의 세계, 동질적 공간, 직선적 시간, 과학, 돈으로 이루어지는 비 세계를 들이치는 것을 초월하려는 필사적 모색이다.(스베르트 2010, 416. 강조는 필자)

가난한 대중이 사는 동네가 구체적이고 ‘생생한’ 문화로 공동체의 현장으로 유지되어왔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추상적 이데올로기에 휘둘리기보다 그들의 경험 속에 쌓여진 공동체적 성향이 발현된 것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의 공존을 위해 만들어진 모든 종류의 공통체 또는 시민성은 그리고 대중을 이런 방향으로 이끌 모든 수단은 ‘경험’을 통해 드러나기”(Balibar 2008, 52 재인용)때문이다.

V.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사회운동의 ‘정동’과 ‘사회성’

대중은 기존의 계급담론을 뛰어넘어 다양하고 평범한 대중 자신이 집단적 주체로 출현한다. 예를 들어, 피케테로스운동과 주민총회운동은 그 구성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서로 중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화시켜 보면, 실업자들이 도로에 나와 시위를 하면 피케테로스가 되고 동네에 돌아가 총회에 참여하면 주민총회운동이 된다. 왜냐하면 피케테로스운동은 대도시 주변의 빈두리 빈민 동네에서 시작된 동네 공동체운동(주민총회운동)으로부터 조직적 집단행동을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이다(Merklen 2004, 2). 이 새로운 사회운동에는 노동자와 실업자만이 아니라 어린이, 여성, 노인, 농민, 원주민 등 거의 모든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로써 다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근거한 새로운 집단적 주체가 출현한 것이다(Rauber 2002, 3). 또는 “새로운 자율적 조직체의 출현”(Svampa 2004a, 3)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케테로스운동과 주민총회운동은 주로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당시는 신자유주의 체제였다. 따라서 중간계급과 대중의 수준에서 ‘탈집단화’ 또는 ‘개별적 파편화’가 사회 문화적 특성 이었다. 연대는 고사하고 신자유주의의 노동 유연화와 불안의 증대로 인해 그들 내부에서 갈등과 적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배제의 체제에 의해 실업이 증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Svampa and Pereyra 2009, 155). 오히려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은 중간계급과 대중의 수준이 아니라 중상층 이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⁷⁾ 그러나 2001년을 전후하여 출현한 새로운 집단적 주체인 중간계급과 배제된 대중은 중요한 ‘정동’을 보이는데 그 것은 사회적 ‘연대’였다.⁸⁾

이렇게 연대의 정동이 출현하게 된 첫 번째 맥락은 대중의 주체적 인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91년에 행상 등의 비공식 노동자가 벌어들인 돈이 1990년대 후반에 가면 절반도 못되게 벌면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못살게 되는 이유를 개인의 게으름이 아니라 “야만적 자본주의”와 대중을 대신하여 정책 결정을 내린 타자들(엘리트)의 잘못에 의한 희생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에 대해 “가만히 순종한” 것이 잘못이라는 인식이 생겼다. 즉, 실업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하락이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거의 피할 수 없는 신자유주의의 글로벌한 구조에서 오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 (Gonzalez Bombal 2002, 106-107).

두 번째 맥락은 이들 대중이 고립되고 파편화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적 문화적 친근감을 유지하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연대를 실천할 수 있었다.

7) 사회적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이 아르헨티나 시민에게 자연스럽게 된 공간적 맥락은 중상층 이상의 계급에 의한 1970년대 후반부의 시골 농원(club de campo)의 형성이 개인적 수준이 아니라 다른 계급과의 ‘구별 짓기’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해야 한다(Svampa 2002, 66-70).

8)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수저론’과 ‘헬조선’ 담론을 통해 극단적 사회적 양극화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담론을 둘러싼 대중의 정동은 ‘냉소’와 ‘무관심’에 가까이 있다. 그런데 “냉소하는 이들에게 모임이란 불가능하다. 냉소하는 이들의 ‘집합’은 있을지언정 ‘연대’는 불가능하다.”(김학준 2016, 318)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쉽게 대안적인 새로운 사회운동이 힘을 얻지 못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나라 전체를 휩쓸고 갔다. 무섭다. 나의 남편은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었다. 나의 아들들은 공부시키는데 갈수록 돈이 많이 든다. 다행히 그들 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직장을 잃으면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나의 아버지는 78살이지만 퇴직 후에도 일을 하신다. 내 동생은 실직 중이고 친구들도 그렇다. 그러나 나는 외롭지 않다. 모든 것이 나를 감싸고 있다.(Gonzalez Bombal 2002, 107)

세 번째 맥락은 중간계급도 경제위기 상황에서 과거에 유지하던 사회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지만 새로운 사회성이 살아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중간계급도 기존의 주체적 인식에 변화가 생긴다. 그리고 그 중요한 변화의 표현이 바로 물물교환운동이다(Gonzalez Bombal 2002, 108).

1. 물물교환 운동의 ‘정동’과 ‘사회성’의 맥락

물물교환운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대중의 생존전략이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방식의 삶을 기획 실천하는 것이다(Fontana et.al. 2003, 233).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가 가져온 대량실업의 상황에서 아무도 생존하기 쉽지 않았다. 전통적으로 아르헨티나에서 배고픔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그러나 대량실업은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1995년부터 시작하여 1998년, 1999년에 특히 활발했고 2001년에 가장 절정에 이르렀던 물물교환운동은 아르헨티나 중간계급이 주도했고 강한 연대의 정동과 사회성을 보여주었다(Gonzalez Bombal 2002, 101). 예를 들어, 물물교환 클럽의 수가 2001년 12월에 전국적으로 약 1,800개에서 2002년 3월에 약 5,000개에 달했다(235). 대부분 중간계급이 주도하고 실업자와 비공식 노동자들 즉, 대중이 함께 애용하던 물물교환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를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이로서 동네의 성당 주일학교 등의 공간을 통해 한 번에 약 300명씩 모이곤 했다(101-102). 다루던 물품은 주로 식품이지만 아주 다양한 서비스와 물품이 교환되었다.

사회에의 편입 불가능성에 대해 절망하고 있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다른 삶의 방식’이 가능함을 일깨우는 일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즉, 사회적 고립에 대한 대안으로 우애와 연대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떤 관념적 인식이나 거창한 조직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매우 작고 소박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5년에 출발한 어느 물물교환운동은 “지역 자급자족계획(Programa de Autosuficiencia Regional)”이란 생태주의자 그룹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그룹은 세 명으로 출발했고 그 둘 중 한명이 집 베란다에 박 씨를 심은 데서 출발했고 그 박을 수확한 뒤에 이웃에게 나누어주었고 이를 받은 이웃들은 그에게 다시 선물을 제공하면서 점점 확산되었다(233-234).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런 작은 연대가 커다란 결실을 맺어나간 것이다. 그리고 물물교환운동의 클럽들을 네트워크의 결절(nodos)로 부른다. 즉 중심이 없고 각각의 클럽이 물물교환운동의 중심인 수평적 구조이다.

이런 보헤미안적 지식인들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실망하고 있던 중간계급의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연대를 통해 물물교환운동은 ‘행복’을 체험하게 한다. 물물교환운동은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이 아니라 “주체성을 출현시킨 산업”(Gonzalez Bombal 2002, 113)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물물교환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인구의 광범한 부분을 사회적으로 배제하는 신자유주의적 성장 중심 철학에 대한 대안으로 자본주의 시장을 재구성하였고 특히 ‘신뢰와 상호성’ 또는 ‘사회성’을 기본적 가치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규칙을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100-101).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물물교환운동에 참여하며 물물교환 자체가 하나의 ‘직업’ 비슷하게 되면서 물물교환의 회전을 또는 효율이 높아졌지만 서로의 ‘신뢰’에 뿌리박는 연대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사실이다(101).

물물교환운동은 글로벌 신자유주의에 의해 배제된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어떻게 하면 파편화된 분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를 두고 나온 대안적 움직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사회관계의 ‘외부’를 지향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다시 글로벌 자본주의 네트워크의 '내부'로 편입될 위험을 안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가 억압해온 '사회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주체의 출현 또는 새로운 사회관계의 출현을 위한 대립 전선의 구축이었다는 점이다.(Fontana et.al. 2003, 205-206)

이는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동네의 작은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일차적 집단의 구심력이 약해지고 자연스럽게 신뢰에 기초한 물물교환의 순수성도 약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물물교환운동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는 중간계급이 중심이 되어 시작했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주로 '식품' 같은 것으로 물물교환이 시작된 것도 그리고 장소도 동네의 여유 있는 공간 또는 테이블과 의자가 놓인 '카페' 같은 공간이 선호되었음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작은 공간을 통해 서로 인간적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계급적으로는 중상층 이상의 중간계급이 아니라 중하층의 중간계급으로 실업자나 비공식노동자(행상 등)들이 중심을 이루었고 참여자들의 나이는 주로 40-70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가난한 대중으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단지 물품의 교환을 넘어 서로 위로하고 연대하는 사회적 정동을 보여준 것이다(101-102). 이는 아르헨티나 대중의 '깊은' 내면에 잠재하고 있던 '타자에 대한 연대'의 정동을 물물교환운동이 끄집어내었다고 볼 수 있다.

2. 주민총회 운동의 '정동'과 '사회성'의 맥락

주민총회 운동은 주로 1996-1997년의 아르헨티나의 북부와 남부 지역의 석유공사 기업들의 실업자들에 의해 피케테로스운동과 병행하여 시작되었다. 하지만 2001년 12월의 대량실업과 심각한 경제 위기 이후 대중은 본격적으로 주민총회운동¹⁰⁾ 시작했다(Svampa 2004b, 120). 그리고 대략 2002년까지 지속

10) 본 연구자는 2012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현지조사하기 위해 노동자 복구기업의 모델인 바우엔 호텔을 방문하였다. 그 때 피케테로스운동과 주민총회운동이 격렬했던 '라 마판사' 동네의 주민총회운동을 이끌던 중년 여성을 만났다. 그녀가 수많은 난관 앞에서도 강력한 연대와 투쟁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언급하던 일이 떠오른다.

되었다(Triguboff 2011, 46). 다시 말해, 주민총회운동은 갑작스럽게 출현한 것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의 메넴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부정적 효과들로 인해 대중의 불만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고 점진적으로 집단적 주체의 출현과 함께 주민 조직화의 과정이 진행된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의 주민총회운동과 2001년 이후의 그것 사이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전자는 실업으로 배제된 공동체가 고용의 회복 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통해 “사회 경제적 재편입”을 요구했다면 후자는 다양한 구성의 대중이 “기존의 사회적·정치적 실천의 중심에서 마치 ‘뿌리 뽑힌 것’ 같은 경험”(Svampa 2004b, 120)을 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차적 차원인 동네의 공동체적 연대(Ortale 2003, 1-3)를 강화했다. 그리하여 직장이 있는 사람들도 실업자들과 연대하였고 다른 사회운동세력과도 연대한다(Ortale 2003, 3-4).

주민총회운동은 ‘동네’를 중심으로 하는 소규모 네트워크 운동이기 때문에 주요 구성원의 성향, 조직의 크기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급진적 직접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정치적 함축이 큰 주민총회 그룹(예를 들어, 자율적 그룹인 MTR, MTD, CCC)등이 있는가 하면 전통적인 사회운동의 성격이 강한 그룹(예를 들어, MIJD, FTV)등이 있고 정당에 많이 의존하는 중앙집권적인 그룹(PO, MTL, MST)도 있었다(Svampa 2004b, 119).

주민총회운동은 물물교환운동과 함께 중간계급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회운동이다. 예를 들어, 중간계급의 주부들에 의한 시위로 유명한 냄비 두드리기 시위(cacerolazos)에 참여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거리에서 나눈 대화로부터 주민총회운동이 시작된다(Triguboff 2011, 49). 즉, 활동 목적이 자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구체적 생존의 현장인 ‘로컬적인 것의 창설’에 있었다. 그리하여 2002년 상반기에 절정을 이룬 주민총회운동은 동질성을 거부하고 ‘다양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미의 시, 공간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단지 시위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언론, 건강, 문화, 금융 등의 다양한 주제로 위원회를 만들어 서로 토론하고 실천하기 시작했

다. 그러므로 다양한 활동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중고 의류 교환을 위한 바자회, 연극, 잡지발행, 공동 식품 구매, 영화모임, 축제, 작은 도서관 설립, 복제 의약품 공급, 노동자복지기업 지원, 동네의 병원이나 학교를 위한 공동 식당의 설치, 자녀 학습 지원, 폐지수집자 지원, 병원 지원, 요금 인상 항의, 강제퇴거의 저항, 가스 전기 등 끊어진 공공서비스 복구, 실직자 대출지원 등을 들 수 있다(Palomino 2004, 39-40). 그리고 딱딱하게 회의만을 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연대를 위한 재미있고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쳤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전략이 오랫동안 활동해온 인권운동 등의 사회적, 정치적 조직 운동세력의 요구를 오히려 효율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주민총회 운동은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일상적인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치 시스템의 개혁, 공공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가격인하, 의료와 교육의 서비스 개선 등의 성과를 말한다(Triguboff 2011, 49).

다시 말해,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 모임을 가지는 주민총회운동의 참여자인 대중은 사회의 '정치화' 또는 "정치적인 것의 공공적 성격의 강화" 또는 '민주주의'의 심화를 원했다(Svampa 2004b, 120). 그리하여 주민총회운동을 "대중의 자율 조직", "반 권력", "대중권력" 또는 "새로운 권력"으로 호명할 수도 있다(120). 메넴 정부 10년 동안 실업과 노동 불안이 확대됨에 따라 신자유주의의 정책 흐름을 전복하고 개인을 그냥 개인으로 나두지 않고 집단적 주체의 구성원으로 재구성되게 만드는 데 주민총회운동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주민총회운동의 두드러진 성격은 위계서열을 깨트리는 구성원들 사이의 '수평성'에 있다.

주민총회운동은 자신을 이웃공동체의 강화운동으로 또는 어떤 정치세력의 대중운동으로 또는 어느 개인의 카리스마 위에 구성된 것도 아니고 또는 정당정치의 운동도 아니다.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조직 형태이고 주로 중간계급과 현직 노동자들, 실업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이다.(Ortale 2003, 4)

‘수평성’을 통해 이들 주민총회의 구성원들은 ‘정치, 국가, 시민성, 정치적 주체’ 등의 민감한 주제를 다시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다(Fernandez 2004, 105-106). 그리하여 시장경제 모델에 대해 회의적, 비판적 시각에서 토론을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자신들 투쟁의 ‘영토적’ 의미를 인식하고 주민들 중 긴급한 상태의 약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활동도 전개했다(Palomino 2004, 39).

다시 말해, 구조적으로 우애와 연대의 정동과 정치적 사회성을 가지고 있던 것이다. 여기서 ‘영토적’ 의미라는 것은 공간적 범주가 소규모의 동네에 머문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또한 실업과 배제에 대항하여 생존의 요구를 위한 투쟁만도 아니다. 오히려 국가를 상대하여 동네라는 상징적, 물질적 수준의 ‘인정’을 공동체적 힘으로 받아내려는 집단행동으로 인식되었다(Merklen 2004, 1). 그 공동체적 힘의 원천은 구성원들이 서로 잘 알고 상호 신뢰의 집단적 에토스(성향, 기질)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로 주민총회운동은 동네 공원에서 많이 열리면서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도록 유도했다(Ortale 2003, 11).

그리고 주민총회운동과 피케테로스운동은 서로 긴밀히 결합되었다. 도로점거 시위를 하지 않는 때의 ‘일상적’ 활동이 바로 주민총회운동이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을 통해 대중이 지배 권력에 대해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이들 아르헨티나 대중에게는 역사적으로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려는 견딤의 철학’이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체가 자아 성찰적이고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윤리적 시각을 보이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철학의 가능성의 조건 때문이다. 인식론적으로 스피노자가 모든 존재에 내재한다고 한 견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고 모든 인간의 내재적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인정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인간적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면 항상 출현한다.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의 긍정은 역사 속에서 사회적 출현의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지배계급 담론의 즉각적 해체의 형식으로 그리고 대중 담론의 다양한 형식으로(예를 들어, 말하기, 노래, 환상적 이야기, 시, 풍자적 연극 등) 표현된다.(Fernandez Nadal 2001, 124. 강조는 필자)

사회적으로 내부 응집력이 강한 주민총회운동은 매우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동네, 지방, 전국 수준으로 조직화되어 있었다. 만약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다면 2001년 전후의 아르헨티나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2003년부터 아르헨티나의 정치·경제가 점점 안정되면서 주민총회운동이 잠잠해졌지만 그 영향은 현재까지도 매우 강하게 남아있다. 왜냐하면 주민총회운동이 기득권계급에 저항하는 정치적 활동 외에 일상문화 속의 새로운 삶의 경험을 통해 참여한 주체 자신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웃주민과의 대화 증가, 상호 주거 방문 등을 통해 이웃의 재발견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증대했다. 또한 자신들의 삶을 성찰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해 집단적 주체 구성의 경험을 했다(Triguboff 2011, 57-58). 이런 경험은 비슷한 경제 사회적 위기 상황이 재발하게 되면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다시 연대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아르헨티나의 자본주의적(신자유주의적)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에 과거의 주민총회운동이 큰 영향이 없는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다.

3. 피케테로스 운동의 '정동'과 '사회성'의 맥락

퇴직 공무원들과 실업자들이 메넴 정부 하에서 시위를 처음으로 하기 시작한 것은 '산티아게나소(Santiaguazo)'로 유명한 1993년이였다. 아직 이 당시는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이였다. 이 시위의 성격은 실업자들만의 시위가 아니라 여성, 환경, 인권, 노동, 학생 등의 다양한 세력들이 연대한 것이다(Rauber 2002, 7). 그러나 피케테로스운동 즉, 실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도로점거의 시위를 벌인 시초는 1996년 네우켄 지방의 쿠틀랄-코(Cutral Co)에서 일

11) 피케테로스운동이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중심점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양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혼재되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민족주의적 포퓰리즘에서부터 반자본주의적 성향의 자율 조직이 섞여 있었다(Svampa and Pereyra 2009, 235).

어났다(Svampa 2004b, 120). 이 도시의 국영 석유회사 YPF 경영진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 것에 대항하기 위해 실업자들이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인 것이다. 그 후 아르헨티나 전국으로 다양한 성향의 ‘조직’ 운동으로 발전되어갔다. 하지만 공통점은 도로점거였다.¹¹⁾

일시적, 비조직적, 우발적 시위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운동 즉, 피케테로스운동으로 전개되어 간다. 예를 들어, 2000년 10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외곽동네인 ‘라 마탄사(La Matanza)’ 지역에서 약 5,000명의 실업자와 많은 주민이 3번 국도를 점거하며 시위에 참여한다. 중요한 피케테로스운동의 하나였다(Rauber 2002, 7; Merklen 2004, 2). 이들은 도로 가운데를 점거한 채 텐트를 치고 약 일주일 이상 머물면서 투쟁했는데 몽둥이와 함께 “우리는 아무것도 잃을 게 없다”고 외치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했다. 핵심적으로 “노동”을 요구했다(Merklen 2004, 2). 라 마탄사 지역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 외곽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였다. 그리고 3번 국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와 남부지방을 연결하는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로였다. 도로 점거의 시위에 노동자(실업자)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정치적 행위자들도 참여했다. 그리고 피케테로스들은 생계 문제와 고용만이 아니라 전반적 정치, 경제의 구조적 변혁을 요구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폭력적 시위를 ‘불법화’하고 탄압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노동자(실업자)들은 도로 점거 시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탄압에 대해 거의 본능(무의식)에 가까운 ‘연대’의 정동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북부 살타 지방의 헤네랄 모스코니(General Mosconi)시에 있는 국영 석유회사 YPF의 실업자들은 경찰의 탄압과 동료의 희생에 맞서 강하게 연대한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잘 아는 이웃과의 투쟁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탄압이 있으면 곧바로 ‘대중’이 거리에 나가게 됨을 확신한다. 우리가 자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중’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실제로 하게 됨을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단지 도로 점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는 도로 점거 방식에 반대했다. 그러나 탄압이 있을 때 곧 도로로 나갔다. 거의 본능과 같은 것이다. 생각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사

이렌이 울리고 젊은이들이 거리에서 외치며 지나갈 때 곧 거리로 나간다. 얻어맞는 죽게 되든 상관없다. 거기에 내가 잘 아는 이웃이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투쟁한다(모스코니의 산별노조 UTD 소속 전직 노동자). (Svampa and Pereyra 2009, 128-129. 강조는 필자)

위의 인용에서 ‘내가 잘 아는 이웃과의 연대’의 정동이 나오게 된 문화적 맥락에 주목해야 한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 실업자들의 집단행동 즉, 피케테로스운동을 서술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 보다는 ‘눈에 안 보이는’ 수준에서 어떻게 이들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이 집단적 주체로 형성되어갔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1990년대에 메넴정부에 의해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 정책이 집행되면서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파편화되고 상징적 수준에서도 집단적 주체의 형성이 어려웠다. 단순히 실업과 가난이라는 공통된 ‘삶의 조건의 악화’가 곧바로 피케테로스운동이라는 집단행동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이들 노동자 대중이 실업자가 되면서 불안정한 비공식 노동 등에 종사하면서 직장과 가정이라는 단순화된 사회성의 공간에서 벗어나 다양하게 일상생활을 통해 사회성을 모색하는 집단적 정체성의 변화를 체험했다(Retamozo 2006, 110-114)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즉, 동네가 이들 대도시 주변부의 실업자들에게 중요했다.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실업자들은 직장을 잃고 가난하게 되었어도 새로운 사회성을 재구성하는 적극적이고 집단적인 체험을 할 수 있었다(114-115).

또한 시위 대중의 집단적 투쟁력은 경찰에 의한 폭력적 진압 시도를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비판하고 거부하기 때문이다(Svampa 2004a, 10). 그리하여 실업자들 외에 중간계급도 시위에 참여했다. 그런데 연대의 정동의 시각에서 어떤 맥락에서 중간계급의 구성원들이 피케테로스운동에 참여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적인 동기는 ‘실업’과 ‘문화적 친근성’이다. 과거 1970년대에는 중간계급의 급진적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가난한 동네를 찾아가 ‘사회적 투쟁’ 과업을 수행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실업에 처한 중간계급의 구성원(주로 젊은이들)이 피케테로스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정당과 노조와

연결되지 않는 자율적 좌파 그룹(예: Coordinadora Anibal Verón과 Movimiento Teresa Rodriguez 운동)에 참여한다. 이들 중간계급의 젊은이들과 자율적 운동그룹 사이에는 정당과 노조로부터 거리를 두려는 공통의 ‘문화적 친근성’이 있었기 때문이다(Svampa and Pereyra 2009, 161).

2001년 12월의 대규모 시위 전까지 이런 연대는 주로 ‘가난한’ 하층 중간계급에 한정되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상당수 중간계급이 하층계급으로 전락하여 같은 동네에 사는 실업자의 일상생활의 실존 조건과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쉽게 연대의 정동에 영향 받게 된 것이다. 가난한 중간계급의 연대가 중요한 맥락은 이들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문화적 상징적 자원을 가지고 있어 조직 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거나 전략적, 교육적 지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01년 12월 대규모 시위 이후에는 피케테로스운동에 보다 ‘광범한’ 중간계급이 연대하게 된다. 그 이유는 중간계급 자신들이 거리를 두려는 전통적 좌파 정당의 흐름과 다른 모델을 피케테로스에게서 발견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와 내륙의 도시들의 동네에서 그러하였다(Svampa and Pereyra 2009, 161). 이를 통해 우리는 중간계급의 연대가 피케테로스 운동과 주민총회운동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피케테로스 운동에 비해 주민총회운동이 더 다양하고 광범한 주체들과의 연대의 공간을 제공했다. 예를 들어, 폐지 줍는 사람들(cartoneros), 좌파 정당, 노동자 복구기업의 주체들과도 연대했다(161). 아마 격렬한 몸싸움의 도로점거 시위보다 다양한 담론을 펼쳐야 하는 주민총회운동에서 중간계급의 잠재적 역능이 더 잘 발휘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VI. 나가는 말

아르헨티나 대중과 중간계급은 1990년대 후반부터 산업이 붕괴되고 실업이 대폭 나는 절망적 상황에서 집단적으로 연대하여 정부에 저항하였다. 아르헨

화되면서 하층 중간계급이 소규모의 ‘동네’를 중심으로 ‘문화적 친근성’, ‘사회적 동질성’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된 대중과 수평적으로 연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소규모 동네의 사회적 동질성, 영토성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대중이 항상 동네의 공동체적 문화적 친근성을 바탕으로 자본주의와 근대성에 대해 대안적 사회적 구조의 재구성에 대해 잠재적으로 집단적 주체의 출현의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스피노자가 지정한 ‘쾌활함’의 연대의 정동을 통해 사회적 역능을 최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바로 아르헨티나의 2001년 전후에 펼쳐진 새로운 사회운동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신자유주의 체제를 당장 혁명적으로 전복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견뎌냄을 통해 그러나 그 체제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로 넘어가려는 문화적 에너지와 방법론을 보여준 것이다.

참고문헌

- 권명아(2012), 『무한히 정치적인 외로움』, 갈무리.
- 김학준(2016), 「질식의 예감」, 『문화과학』, Vol. 85, pp. 309-319.
- 박영균(2011), 「주체형성의 유물론적 관점: 사회적 신체와 연대의 정치학」, 『진보평론』, Vol. 47, pp. 14-34.
- 베네딕토 스피노자(2016), 『에티카』, 강영계 역, 서광사.
- 서영표(2011), 「대중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주체형성 전략을 모색하자」, 『진보평론』, Vol. 47, pp. 4-12.
- 스티븐 내들러(2013), 『에티카를 읽는다』, 이혁주 역, 그린비.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2011), 『제국』, 이학사.
- 안토니오 그람시(2006), 『그람시의 옥중수고 1』, 거름.
- 이동연(2016), 「정동과 이데올로기」, 『문화과학』, Vol. 86, pp. 24-58.
- 자크 랑시에르(2008), 『무지한 스승』, 양창렬 역, 궁리.
- 질 들뢰즈(2001), 『스피노자의 철학』, 박기순 역, 민음사.
- 호세 마리아 스페르트(2010), 「권력과 종교적 신념의 화학적 변용」, 볼프강 작스 외, 『반 자본 발전사전』, 이희재 역, 아카이브.

- Almeyra, Guillermo(2005), “Los movimientos sociales en Argentina, 1990-2005”,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Unidad Xochimilco, *Argumentos*, No. 49, pp. 43-68.
- Balibar, Etienne(2008), *Spinoza and Politics*, London: Verso.
- Beccaría, Luis et. al.(2002), *Sociedad y sociabilidad en la Argentina de los 90*, Buenos Aires: Biblos.
- Brieger, Pedro(2003), “Amerique Latine: Nouvelles formes de participacion”, *Agir-Revel Generale de Strategie*, No. 15, pp. 1-12.
- Cappelletti, Angel(ed.)(1990), *El anarquismo en América Latina*, Caracas: Ayacucho.
- Cohen, Michael(2007), Convertibilidad, crisis y desafíos para el futuro: 1991-2006, Margarita Gutman and Jorge Enrique Hardoy, *Buenos Aires 1536-2006*, Buenos Aires: Ediciones Infinito.
- Crassweller, Robert D.(1988), *Peron and the Enigmas of Argentina*, New York: Norton & Company.
- De Ipola, Emilio(2004), “Política y sociedad ¿escisión o convergencia?”, Graciela Di Marco and Hector Palomino(eds.), Reflexiones sobre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Jorge Baudino Ediciones*, pp. 55-72.
- De la Torre, Carlos(1992), “The Ambiguous Meanings of Latin American Populisms”, *Social Research*, Vol. 59, No. 2, pp. 385-414.
- Di Marco, Graciela(2004), “Presentación de los resultados de la investigación sobre movimientos sociales emergentes”, Graciela Di Marco and Héctor Palomino (eds.), Reflexiones sobre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Jorge Baudino Ediciones*, pp. 27-43.
- Fernandez, Ana María(2004), “Asambleas de los barrios: apuesta política, construcción subjetiva”, Graciela Di Marco and Héctor Palomino(eds.), Reflexiones sobre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Jorge Baudino Ediciones*, pp. 105-128.
- Fernandez Nadal, Estela(2001), “Arturo Andres Roig(1922)”, Clara Jalif de Bertranou(comp.), *Semillas en el tiempo. El latinoamericanismo filosófico contemporaneo*, Mendoza: EDIUNC.
- Fernandez Cabrera, Beatriz(2012), “Territorialidad, sujetos populares y nuevas resistencias a proposito de los Comités de Tierras Urbanas venezolanos”, *Cuadernos del CENDES*, Año 29, UCV, Caracas, No. 81, pp. 49-78.

- Fontana, Edgardo et. al.(2003), *Argentina, Apuntes para el nuevo protagonismo social*, Barcelona: Virus.
- Gonzalez Bombal, Ines(2002), “sociabilidad en clases medias en descenso: experiencias en el trueque”, Luis Beccaria et. al., *Sociedad y sociabilidad en la Argentina de los 90*, Buenos Aires: Biblos, pp. 97-136.
- Laclau, Ernesto(2008), *Debates y combates*, Buenos Aires: Cfe.
- Lobato, Mirta(2003), *La protesta social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Cfe.
- Maldonado-Torres, Nelson(2007), “Sobre la colonialidad del ser: contribuciones al desarrollo de un concepto”, Santiago Castro-Gomez and Ramon Grosfoguel(ed.), *El giro decolonial*, Bogotá: Pensar.
- Mellado, Norma E.(2005), “El trueque como alternativa de rearticulación social de los desocupados en el marco del Mercosur. El caso argentino”, *Revista Aporte para la integración latinoamericana*, tesis de maestría, pp. 1-59.
- Merklen, Denis(2004), “Sobre la base territorial de la movilización popular y sobre sus huellas en la acción”, *Laboratorio/n line, Revista de Estudios Sobre Cambio Social*, año IV, No. 16, pp. 1-10.
- Muñón de Britos, Stella Maris and Luzuriaga, Carolina(2004), “La cultura como espacio de lucha: asambleas, piquetes y sus imagenes en los medios y en el arte”, Graciela Di Marco and Hector Palomino(eds.), *Reflexiones sobre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Jorge Baudino Ediciones.
- Ortale, Mariana Cecilia(2003), “Las Asambleas Barriales: Un tipo de acción colectiva muy particular: La Asamblea Barrial Parque Saavedra”, tesis de licenciatura,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http://www.memoria.fahce.unlp.edu.ar/te.527/te.527.pdf>, pp. 1-29.
- Palomino, Hector(2004), “Presentación de los resultados de la investigación sobre movimientos sociales emergentes”, Graciela Di Marco & Héctor Palomino(eds.), *Reflexiones sobre los movimientos sociales en la Argentina*, Buenos Aires: Jorge Baudino Ediciones, pp. 35-44.
- Quijano, Anibal(2000), “Colonialidad del poder, eurocentrismo y América Latina”, Edgardo Lander(ed.), *La Colonialidad del Saber: Eurocentrismo y Ciencias Sociales. Perspectivas Latinoamericanas*, Buenos Aires: CLACSO, pp. 201-246.
- Rauber, Isabel(2002), “Piquetes y Piqueteros en la Argentina de la crisis”, <http://www.urbared.ungs.edu.ar/textos/piquetes.doc>, pp. 1-34.

- Regalado, Roberto(2008), *Los gobiernos de izquierda en América Latina*, México: Ocean Sur.
- Santos, Boaventura De Sousa(2001), “Los Nuevos Movimientos Sociales”, *O.S.A.L.*, <http://bibliotecavirtual.clacso.org.ar/ar/libros/osal/osal5/debates.pdf>, pp. 177-188.
- Svampa, Maristella(2000), “Clases medias, Cuestión social y Nuevos Marcos de sociabilidad”, *Punto de Vista*, No. 67, pp. 1-15.
- _____(2002), “Las Nuevas Urbanizaciones Privadas Sociabilidad y Socialización: la integración social ‘hacia arriba’”, Luis Beccaria et. al. *Sociedad y Sociabilidad en la Argentina de los 90*, *Buenos Aires: Editorial Biblos*, pp. 55-96.
- _____(2004a), “Sobre clases medias, gobierno peronista y movimientos piqueteros”, *El Rodaballo*, No. 15, pp. 1-14.
- _____(2004b), “Movimientos sociales y nuevas prácticas políticas en Argentina. Las organizaciones piqueteras”, *Nomadas*, No. 20, pp. 112-126.
- ____ and Pereyra, Sebastian(2009), *Entre la ruta y el barrio*, Buenos Aires: Biblos.
- _____(2010a), *Civilización o Barbarie*, Buenos Aires: Taurus.
- _____(2010b), “Movimientos sociales, matrices socio-políticas y nuevos escenarios en América Latina”, working paper 01, Hans Bockler Stiftung, Universität Kassel, www.maristellasvampa.net/archivos/ensayo45.pdf, pp.1-26.
- Triguboff, Matias(2011), “Acción colectiva, vida cotidiana y trayectorias. El caso de Las Asambleas de la Ciudad de Buenos Aires(2001-2007)”, *RUN4*, Vol. 32, No. 1, Universidad de Buenos Aires, pp. 45-62.
- Zanatta, Loris(2011), *Eva Perón una biografía política*, Buenos Aires: Sudamericana.
- Zibechi, Raul(2011), *Política y miseria*, Buenos Aires: Lavaca.

안 태 환

부산외국어대학교
tomy30@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6년 9월 4일

심사완료일: 2016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6년 12월 13일

Cultural Approach of Argentine New Social Movements before and after 2001: 'Affections' and 'Sociability' of Solidarity

Tae Hwan Ah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Ahn, Tae Hwan(2016), "Cultural Approach of Argentine New Social Movements before and after 2001: 'Affections' and 'Sociability' of Solidarity", *Revista Asiática de Estudios Iberoamericanos*, 27(3), 29-65.

Abstract Argentine new social movements are not guided by some leftist political parties nor organized labor unions as it is neither labor movements nor political movements but ones which intend to change the structural frame of social relations or relations of power already made by neoliberalism by means of communal cultural energies of 'barrios' and through the apparition of new collective subject of people by himself. And so Argentine new social movements began since the second half of 1990s. Concretely are the Picketers movements, Suburban Assembly movements, Barter movements promoted by affections and sociability of solidarity of people and middle clas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does not remain in the general research about above mentioned new social movements with the historical approach but the analysis about how the cultural contexts help the excluded people and middle class to have those affections and sociability of solidarity. First of all, through the 1990s, the disasters came to the middle class as unemployment or poorness. But these lower middle class members show affections and sociability of solidarity with excluded people in their suburbs by means of Suburban Assembly movements, Barter movements. The cultural contexts which made them possible are 'social homogeneity', 'cultural familiarity', 'horizontality', embedded in the same suburbs. The people also who suffer from unemployment and extreme poverties could fight collectively and persistently against neoliberalism thanks to the solidarity and consolation from the suburbs. It was communal cultural power of the suburbs that could practice the movements of alternative reconstruction and transformation over the capitalist social structures.

Key words Affections and Sociability of Solidarity, Cultural Familiarity, Picketers movements, Suburban Assembly movements, Barter movements